



**SK하이닉스, 5번째 '혁신특허포상' 시상식**

SK하이닉스는 '혁신특허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특허포상은 회사 성장과 기술혁신에 기여한 특허를 발명한 구성원에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왼쪽부터) 지속경영담당 김윤욱 부사장, 미래기술연구원 황선환 TL, SKHU 장세익 교수, 미래기술연구원 차선용 부사장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안양 독거노인에 방한의료 등 기부**

LS일렉트릭은 최근 'LS일렉트릭과 함께하는 온기 가득 방한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5000만원 상당 방한복과 방한화를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250여명에 기부하는 내용이다. 김동현 LS일렉트릭 ESG총괄 대표이사(왼쪽)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장 해철 스님(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S일렉트릭



**한화시스템 신입사원, 헌충원 참배로 첫 업무 시작**

한화시스템 신입사원들이 헌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으로 본격적인 직장생활의 시작을 알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7일 서울국립헌충원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49명이 참여해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조아제약, ESG경영 실천... 취약층에 물품 후원**

조아제약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유익균 증식 및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조아장건강'과 손 소독제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후원했다. 후원 물품은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취약 계층에 전달됐다. /조아제약

**인사**

◆스마트시티투데이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이경탑 ◇ 기획실장 박수진

**부음**

▲김재욱씨 별세, 김상수(목포 동성포장 대표)씨 부친상, 박영희씨 시부상, 김정용(서광주청연한방병원 총괄과장)·김형준(LG이노텍 사원)씨 조부상, 주현정(무등일보 취재1본부 차장)씨 시조부상 = 8일 오전, 전남 목포 삼목장례식장 202호, 발인 10일 오전 11시, 061-274-4441

**'CJ그룹 주춧돌' 손복남 고문 영면... 범삼성가 애도**

이재현 회장, 관 불들고 오열  
손 고문 유지 받들어 화장 택해

CJ그룹의 주춧돌이 된 고(故) 손복남 CJ 고문이 8일 영면에 들었다. 고인은 CJ그룹이 창립 69주년을 맞던 지난 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영결식과 발인식은 이날 오전 8시께 빈소인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진행됐다.

영결식에서 세 자녀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손 고문의 동생 손경식 CJ그룹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 중에선 정용진 부회장이 대표로 영결식에 참석했다.



CJ그룹 이재현(왼쪽) 회장과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고 손복남 CJ 고문의 발인식에서 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영결식에 앞서 장례 미사가 열렸고 이후 영결식이 진행됐다. 영결식은 영정·위패 입장, 고인 약력 소개,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열렸다. 영결식이 끝난 오전 8시5분께 운구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인의 위패는 손주인 이호준씨가 들었다. 손주 사위 정종환 C

J 부사장이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뒤를 따랐다.

이재현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모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이선호 CJ 제일제당 경영리더의 부축을 받고 뒤따랐다.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과 손경식 회장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정 사진과 관이 운구차로 옮겨질 때 이재현 회장은 고인의 관을 불들고 오열했다. 이 회장이 오열하자 뒤를 따르던 이미경 부회장 등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운구차는 양재 추모공원 화장터로 이동했다. 유족들은 손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화장을 택했다. 장지는 경기 여주 선영에 마련됐다.

고인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고 손영기 씨의 장녀로,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남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과 1956년 결혼하며 삼성가와 인연을 맺었다.

제일제당을 물려받은 이재현 회장이 CJ를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재현 회장은 어머니에 대해 "CJ그룹 탄생의 숨은 주역이시고, 내가 그룹의 경영자로 자리잡는 데 든든한 후원자였다"고 회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o.co.kr

**SK-유니세프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 아동권리 반영·존중돼야"**

아동친화기업 포럼 공동개최  
기업 지속가능성·생존과선결

SK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유니세프와 아동친화기업 포럼을 개최했다.

SK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아동권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2022 아동친화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유니세프와 유엔글로벌컴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012년 선포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P)' 10주년을 맞아 유니세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친화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2 아동친화기업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K

업 포럼이다. 국내 ESG경영을 선도해온 SK가

지속가능 사회 및 경영 차원에서 아동친화기업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포럼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아동친화 관련 기업 경영정책, 영향평가, 성과측정 등 기업 및 구성원, 이해관계자들의 실천 의지에 따라 사회와 가정에서의 아동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유럽연합(EU) 등은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

SK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를 주도하며 '행복도시락' 제공으로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교육·정서 지원 등 활동을 해왔다. 또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을 1996년에 시작해 지난 9월까지 25회째를 진행하는 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품 생산, 마케팅, 유통 및 소비 등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아동 권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또 기업 구성원의 아동 양육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선결돼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엔솔 사내 독립기업 AVEL, 제주 전력망 안정화 나선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손잡고  
ESS 활용 전력사업 추진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 독립기업 'AVEL'이 제주 전력망의 안정화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손잡고 'EaaS(Energy as a Service)'를 사업을 제주에서 펼친다. 'EaaS'는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 및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전력망 효율화를 돕는 사업 모델이다.

AVEL은 지난 1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에너지공사 본사에서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지역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AVEL과 제주에너지공사는 ESS 전력망 통합 솔루션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 관련



(왼쪽부터)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CIC) 김현태 AVEL 대표가 1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에너지공사 본사에서 '제주지역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VEL은 지난 10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민첩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범한 사내 독립기업(Company-in-Company-CIC)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A

VEL은 EA(Energy Aggregation·에너지 전력망 통합관리)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출범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ESS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리따운 물품나눔'  
24억 상당 물품기탁**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22년 하반기 '아리따운 물품나눔'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아리따운 물품나눔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마련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물품기부 활동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라네즈, 이니스프리, 러, 한울, 라보에이치 등 16개 브랜드가 기부한 24억원 상당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국 사회복지시설 1500여 곳에 전달한다.

아리따운 물품나눔은 2005년 '사랑의 물품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규모를 확대했다. /이세경 기자